

#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 이론과 현상의 개관

김인경      윤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발달심리학 중 청소년 발달에 대한 많은 이론들 가운데 이시기의 전형적 발달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adolescence egocentrism)이 청소년 발달의 제 영역들(인지 및 사회인지 발달, 심리역동,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 적용 및 정신건강 그리고 가족관계 등의 사회체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정리하여 살펴보고, 그 관련성이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했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청소년기의 각 영역(인지, 심리역동, 성격, 자아개념, 정신건강 등)의 새로운 발달적 도약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합하여 개인의 총체적 능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 결론짓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연구의 의문점 등을 제시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힘이 든다. “우리때만 안 그랬다!”라고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자녀에게 똑같은 투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왔고, 그리고 이런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이다. 이는 각기 다른 인생주기에 있는 개인들이라도 이들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그 시기 만의 전형적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시기 특유의 이런 행동적 특성은 인간 발달의 한 과정으로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청소년기에는 다른 인생 단계에서 보기 드문 여러가지 독특한 행동이 나타난다. 특히 고양된 자의식, 패거리 짓기(crushes), 이상주의, 과시행

동(show-off), 무모한 행동, 수치심 및 수줍음에 대한 예민함 등이 그것이다. 특히,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청소년기는 무모한 행동(위험 추구 행동, 10대 임신, 약물사용, 폭주족, 비행)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무모한 행동은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일탈행동이나 정신병리의 지표가 아닌, 성인의 기준에 비추어 수용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청소년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몇 경우에 이런 무모한 행동은 정신병리를 반영(Brill & Cristie, 1974)하거나 병리적 유전환경(pathogenic)을 지닌 가족(Dembo, Derke, LaVoie, & Bonders,

1987)이나, 부모의 거부, 적대감, 부재 등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만연하는 무모한 행동은 이런 특수한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엔 일반적이고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행동특성을 설명하려는 연구자들은 발달 단계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이에 적합한 요인으로 대두된 몇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Elkind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Adolescence Egocentrism)이다(Arnett, 1990, 1992)으로 청소년기에 관찰되는 전형적인 행동특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Lapsley, 199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Elkind의 초기 가설에서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의 논리적 자아중심성과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Piaget식의 '자아중심성'이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미분화 상태를 말한다. 인지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 사고가 생기는 초기 청소년기(약 11세 - 12세)에는 새로운 추상적 사고 능력과 더불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로 청소년 자신에 대한 전환기적 관심이 증가한다. 이때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과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이라고 일컫는 왜곡된 지각 현상이 나타나 그 후 형식조작 사고가 견고해지면 이런 왜곡된 지각은 점차 소멸된다. 여기서 상상속의 청중이란 사고과정에서 분화가 결여되어 생긴, 실제의 청중과 자신들의 기대 속의 청중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지적 현상이다. 또한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생긴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이런 상념들은 청소년기 동안 친구와 긴밀한 우정관계를 유지하여, 다른 또래들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하면 극복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lkind의 관점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란 형식조작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사고의 분화가 불완전하여 발생된 청소년기의 행동적 특성으로,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 간의 사고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해하면 해소되는 사고의 오류이다(Elkind, 1967, 1978).

그러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인지발달 관점의 설명이 가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Lapsley et al., 1985, 1987). 첫째, 형식조작 사고가 통합되는 청소년 후기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감소(극복)한다는 Elkind의 가정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인지적 자아중심성이 각 단계가 새롭게 시작할 때 나타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Piaget의 견해는 각 단계에서 나타난 자아중심성은 다음 단계의 인지능력으로 전환(transformation)하는 과정에서 극복된다는 것이고, Elkind는 형식 조작 사고가 견고화(consolidation)된 후에 극복된다는 견해로서, 이 둘 간에는 일관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한 형태의 자아중심성이 소멸되고 다음 형태의 자아중심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그 단계의 인지 능력보다 향상된 다음 단계의 인지 능력의 출현과 함께 이루어진다. 결국 한 단계의 인지 능력이 견고해진 것만으로 그 단계의 자아중심성이 소멸 혹은 극복된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형식조작 사고 보다 더 발전된 다음 단계의 인지능력의 출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Elkind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Piaget식의 자아중심성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없다.

둘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이론적 선행조건이 되는 타인의 사고를 인지하는 능력 만으로는 자아중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타인의 생각을 인지할 때, 자신의 기존 관점을 배제해야 하나 이를 억제하지 못해서 자신의 견해가 포함되고 그 결과 타인의 관점을 "예상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재해해 놓기"때문에 생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역할 수용 오류(role-taking error)는 어린 아동에게서 더 많이 보이는 속성이며(Selman, 1980) 형식 조작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의 속성은 아니다

(Enright & Lapsley, 1981). 그러므로 사회인지적 관점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진다.

세번째 문제점은 상상속의 청중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자의식 개념을 그 측정지표로 삼는 문제와 관련된다. 물론 이론과 측정의 조작적 정의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상속의 청중을 자의식 수준으로 측정할 자료들이 자아중심성의 속성을 얼마나 타당하게 설명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런 비판과 더불어, 인지발달 관점의 연구들에서 비밀관적인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자아중심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Bloss는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행동 특성을 정신역동적 측면에서 방어기제로 설명했다. 청소년은 새롭게 경험하는 생리적 충동을 조절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 기대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란 이 시기의 발달과업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내면화되어 있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할 때 생기는 내적 갈등을 감소시키려고 애쓰고 이런 방어적 노력(심리역동)이,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나타난다(Bloss, 1967; Muuss, 1988). 한편으로 새로운 사회상황의 행동양식을 또래로부터 배워 이런 갈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부모와는 소원해지고 또래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여 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또래가 제공하는 준거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청소년기 특유의 행동양식과 사고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출현과 쇠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Selman(1980)의 조망수용 이론(theory of perspective taking)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가 추론되었다(Lapsley & Murphy, 1985). Selman의 3 수준에서 나타나는 자아를 관찰하는(observing self) 힘과 자신을 관리하는 주체 의식(personal agency)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유발한다. 그리고 4 수준에 이른 청소년들이 보다 확대된 관점으로 자신을 자리

매김할 수 있을 때, 이들은 더이상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궁극적으로 자아중심성도 쇠퇴한다.

이와 같은 Bloss와 Selman의 이론에서부터 새로운 이론적 통합을 모색되어(Lapsley & Rice, 1987) 청소년의 자아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설명했다. 특히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개인의 개별성을 확립해가는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내적 심리적 상태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차 분리 개별화 과정(secondary individuation-seperation)과 조망수용(perspective-taking) 과정에서 개념적 관계성을 추론하였다. 청소년기에 다시 일어나는 이차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 생기는 방어적 특성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기통제감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라 보았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출현과 쇠퇴를 논의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시행된 많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인지 발달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설명하고자 한 여러 관점들을 살펴보면, 자아중심성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극복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의 대인관계 상호작용 속에서 익힌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타인의 사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자아중심성이 극복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 평생 발달 관점에서 청소년기가 차지하는 발달 특성 때문이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주요한 발달의 질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고과정이 구체적 조작을 넘어서 형식조작 사고로 완성되어 간다. 둘째, ‘사춘기’로 불리는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런 변화에 따른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셋째, 상급학교 진학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사회적 대인관계가 확대되고 새로운 대인관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

다. 네째, 어느 시기 보다도 또래관계가 중요 시되며 동성 또래와의 우정 및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해진다. 다섯째, 부모의 사랑과 지원을 통해 얻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 발달은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달리 예정된 발달계획(성숙)에 따라 성장하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더 많은 영향(개인이 성장한 시기의 역사와 출생동시집단 변인 등)을 받는다. 따라서 환경적 변화를 간과한 채 개인 내적 요인만으로 청소년 발달을 설명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청소년 전발달 기간 동안에 걸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발달적 현상이라 설명된다면, 이시기의 다른 영역들의 변화와 발달에도 그 영향이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서 간과해온 청소년기의 제반 발달 영역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생 전반에서 청소년 발달이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다른 인생 주기와의 연계성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시기의 다소 퇴행적 혹은 이탈적 행동 변화가 지니는 발달적 의미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청소년 개인 변인,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 변인의 관계를 검토한다면, 청소년기의 전형적 행동 특징을 설명하는 구인으로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 인지발달과의 관계

### 1) Piaget 인지발달 맥락과의 관계

Piaget 인지발달의 최종단계인 청소년 초기에 이르면, 체계내의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여 사실과 반대되는 명제를 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고를 개념화하고 추론할 수도 있다. 이시기의 자아중심성이란 타인의 사고를 인지할 수는 있지만, 자신과 타인이 관심을 두는 대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기 청소년들은 타인들이 자신들처럼 그들의 외모와 행동 그리고 사고에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며 눈여겨 볼 것이라 기대한다. 심지어 청소년들은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자신들이 믿는 바를 타인들의 실제 생각이라고 확신한다. Elkind(1967)는 이런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adolescence egocentrism)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과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라는 두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상상속의 청중이란 자신이 타인의 주목을 받고 평가대상이 되고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오해이다. 즉 청소년들은 타인들도 자신들처럼 그들에게 비판적이며,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또 감탄하기도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주시하는 "상상속의 청중"을 만들어 내고 이런 상상속의 청중은 청소년 초기의 한 특징인 자의식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에 대한 타인의 반응(reaction)을 예측하려고 애를 쓴다. 예를 들면,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느낄때, 청중 또한 비판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또 스스로에게 자주 찬사를 보낼때, 청중 또한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유치함, 변덕스러운 옷차림, 괴기한 몸차림과 이상한 유행어와 행동 등은 상당 부분이 아마도 청소년의 이런 속성 때문에 야기되는 것 같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의 이런 독특한 복장과 행동방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자아중심성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실제로 상대방을 관찰하기 보다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더 관심이 많다.

한편, 개인적 우화는 상상속의 청중과 더불어 그것을 보완해주는 또 다른 정신적 구조이다.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반해서, 동시에 자신의 경험은 지나치게 세분화한다. 이 결과, 자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즉, 상상속의 청중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어서, 자기자신, 특히 자신의 감정은 특별하고 더할 나위없이 독특하며, 오로지 자신만이 이러한 격렬한 고통과 환희를 경험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개인적 독특성에 대한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청소년들은 자신이 불멸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에게는 죽음이나 위험, 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이며 혹시 그럴지라도 자신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런 경향 때문에 청소년들은 특정(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행동을 택하여 과감히 실행하기도 한다. 자신에 대한 이런 비합리적인 믿음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하는 허구의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개인적 우화”라고 부른다. 개인적 우화는 개인적인 신을 창조하여 이런 신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 놓으며 자신과 신과의 대화는 통한다고 믿는 그러한 행동이나 청소년의 일기에서 특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청소년 초기에 그 절정을 이루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형식적 조작능력이 확립되는 시기인 15-16세가 되면 사라진다. 청소년들에게 현실을 검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상상속의 청중이 아닌 실제 청중의 반응 쪽으로 사고의 방향이 옮겨가게 되고 점차 자신의 관심사와 다른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이해해야지만 상상속의 청중 현상은 극복된다. 일단 현실적인 시야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기본위적 대인관계가 아닌 진정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개인적 우화현상은 Erikson의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점차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상호 신뢰관계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그들만의 독특한 경험이기 보다는 타인들도

유사한 감정을 느끼고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이 현실적 대안으로 수정되고 개인적 우화 경향도 사라진다.

결론적으로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과 타인의 사고와 관심 간의 차이를 점차 구분하게 되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특히 상상속의 청중)이 극복되는 반면, 정서적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점차 통합해가면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특히 개인적 우화)이 극복된다. 따라서 Elkind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개념으로 특정한 발달단계에 독특한 인지구조들이 그 단계의 특징인 정의적 경험과 행동에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자아중심성에 대한 고찰이 인지구조와 성격의 역동성을 조화시키는 시도로서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형식 조작 사고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김인경과 윤진, 1988; 윤진, 김인경, 및 김길청, 1989; Goossens, 1984; Gray & Hudson, 1984; Lapsley, Milstead, Quintana, Flannery & Buss, 1986; Pesce & Harding, 1986; Protinsky & Wilkerson, 1986)에서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형식 조작 사고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상상속의 청중 경향이 감소하였고 (Goossens, 1984; Gray & Hudson, 1984; Riley, Adams & Neilson; 1984), 구체적 조작과 형식 조작 사이의 과도기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절정을 보였다(김인경과 윤진, 1988; 윤진, 김인경, 및 김길청, 1989). 또한 형식조작과 자아중심성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결과도 있다 (Goossens, 1984; Lapsley, Milstead, Quintana, Flannery & Buss, 1986; Pesce & Hardig, 1986).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형식 조작 사고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인지발달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인지발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신랄한 개념적

비판(Blasi & Hoeffel, 1974; Vikan, 1983)을 불러오게 되었고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두 구인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사회인지발달과의 관계

사회인지 발달과 비사회인지 발달이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구별된다(Piaget, 1932). 사회인지는 아동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며,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가는 것을 말한다. 사회인지 이론의 기본전제는 아동이 자신의 인지적 능력과 기술을 사회적인 대인관계 상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과정에도 적용해간다는 것이다. 즉, 두 사람의 지적능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추론, 도덕추론과 같은 사회적 적응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Selman, 1975).

표 1. Selman의 조망수용 발달단계

단계 0: (3-5세)	자아중심적 미분화단계
단계 1: (5-9세)	분화된 주관적 조망수용 단계
단계 2: (7-12세)	자기참조적, 혹은 상호 호혜적 조망수용단계
단계 3: (10-15세)	제 3자적, 혹은 상보적 조망수용단계
단계 4: (12세부터 성인)	보다 심도있는 사회적 조망수용단계

Lapsley와 Murphy(1985)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이 두 구인의 생성과정을 자아이해(self-understanding)의 발달과정(Broughton, 1978; Damon & Hart, 1982; Selman, 1980)인 대인관계 맥락에서 이해하고

자 했다. 그래서 이들은 대인역할 관계를 사회적 조망취득 능력의 변화로 설명한 Selman의 조망수용 이론(Selman & Byrne, 1974)을 통해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설명했다.

제 3단계의 조망수용 수준에 이른 초기 청소년은 단순히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쌍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망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 양자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자신의 자아 내에서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개념화한다(Selman, 1980). 즉,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자기나름의 자기관찰(observing self)이 가능해져서, 스스로 자신의 자아경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자각은 이 시기 청소년들의 자의식(Damon & Hart, 1982)과 청소년기에 흔히 '자신을 관리하는 주체의식(feeling of personal agency)'을 강화시키고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는 주체의식은 새로운 자기 통제양식을 형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믿음을 준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을 관찰(observing self)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관점을 자신의 내적 상태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의 관점간의 차이를 혼동한다. 이것이 상상속의 청중을 출현시킨다. 동시에, 자신을 관리하는 주체의식(personal agency)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생긴 자기 통제감은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과 개인적 독특감, 그리고 이로부터 생긴 위기상황에 대한 불멸감(indestructibility)을 형성한다. 이로써 개인적 우화가 나타나게 된다(Lapsley & Murphy, 1985).

그러므로, Lapsley 등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가설검증적 사고 능력(형식 조작) 및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을 자신에게 반영하여 조망하는 능력(단계 3의 조망수용)의 두가지 인지적 기술이 복합되어 출현한다고 보았다.

한편 청소년에게 4 단계의 조망수용 능력이

생기면, 모든 가능한 제 3자의 관점을 통합하고 사회체계적 관점을 소유하게 되고 이로써 청소년기<sup>1</sup> 자아중심성 경향성은 감소한다. 즉, 자신의 관점과 사회의 관점이 모두 상대적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사실이란 각 개인이 소유한 분석틀에 의해 해석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조망수용 수준을 획득하게 된 청소년은 보다 큰 사회적 시야를 가지고 자신의 굳건한 자리를 확신있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의 반응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자아중심성도 점차 감소한다(김인경, 1993a).

역할취득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장근영과 윤진, 1992)에서는 두 개념간의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부적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고, 청소년 비행자들을 대상으로 조망 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탈자아중심성 훈련을 시킨 후 이들의 재범율을 조사한(Chandler, 1973) 결과, 재범율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상속의 관중은 타인에 대한 투사적(projective) 추론의 결과이고, 역할취득의 발달과정에서는 타인의 역할을 이해하되 그것이 자기의 관점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수준에서 생긴 개인의 조망수용 능력의 한계이다. 한편 개인적 우화는 “자기의 통제력에 대한 과신”과 연관되어 자기의 내적 동기와 스스로를 감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오판하므로서 발생한다.

## 2.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정과의 관계

### : 심리역동적 측면

Peter Blos는 정신분석적 논리를 확장시켜 성격발달이 생애초기가 아닌 청소년기에 완성된다고 보고, 청소년기 동안에 형성되는 인격구조의 재구성과 재구조화 과정(이차 개별화

과정)을 규명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Blos는 사춘기 동안에 나타나는 오이디프스 콤플렉스의 재현과 이차 개별화 과정(secondary individuation)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성격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Blos, 1967; Muuss, 1988).

Blos에 따르면, 사춘기는 신체적 성숙이 주는 생리적, 심리적 에너지(libido)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제 2의 남근기이다. 남근기 말기에 나타나는 일반적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이외에, 사춘기에 나타나는 두번째의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것이 이차 개별화 과정을 완결하는데 중요하다. Mahler(1975)에 의해 발전된 일차 개별화 과정은 생후 3년째에 나타나서, 대상영속성 개념이 습득되어 ‘나’와 ‘내가 아닌’을 구별하게 됨으로서 해결된다. 이런 일차 개별화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물리적인 독립성을 인식할 수 있고, 어머니의 존재(초자아 형성)를 내면화하게 된다.

Blos는 이렇게 내면화된 어머니 상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는 과정(자아이상 형성)을 ‘이차 개별화 과정’이라 하여, 이 과정에서 추동조직(drive organization)과 자아기능(ego function)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 결론적으로 이차 개별화 과정이란,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생겨나는 리비도적 충동에 의해 유발되며, 가족성원을 향한 심리적 애착에서 벗어나 가족외의 개인들과의 애착을 형성해가는 과정, 즉 ‘심리적 이유’를 말한다(Blos, 1967). 이런 과정에서 생긴 심리역동적 애착(cathexis)의 이동은 청소년기 동안의 정상적인 내적 대변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재평가를 위한 중요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유아기의 분리불안이 자아의 자기도취적 과장(narcissistic self-inflation)에 의해 보상되었듯이, 사춘기 동안 부모 자녀 관계의 재정립으로 인해서 약해진 청소년의 자아는 유아기의 거대한 자아(grandiose self)를 재활성화

## 표 2. Blos의 청소년기 발달의 6단계

---

### 1단계 : 잠재기

자아통합(ego consolidation)이 주요 과제로써 새로운 리비도적 추동이나 본능적 욕구의 출현은 없고 성격요소(자아, 이드, 초자아)간의 조화, 균형, 관계성이 완속되어 앞으로 있을 갈등을 준비하는 시기다.

### 2단계 : 전 청소년기

성적, 공격적 에너지 수준이 상승되어 이드가 강해지는 반면 자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성격구조의 균형이 깨진다. 이성부모에 대해 성적으로 끌리는 동시에 동성부모에 대한 불안이 생겨, 이에 대한 방어기제가 작용한 결과로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고 가족에서 이탈하여 또래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고삐풀린 망아지'같은 일탈행동을 보인다.

### 3단계 : 초기 청소년기

특정 대상에 대한 열광, 매혹, 열광적 동일시를 보인다. 잠재기에는 부모나 보호자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매력적 인물에 대해서, 후기 청소년기에는 실재 인물을 동일시한다.

### 4단계 : 청소년 중기

심리적 재구조화 시기로써 동성애적 충동이 이성을 향해 바뀌는 시기이다. 가족 밖에서 새로운 이성 대상을 찾으려 한다.

### 5단계 : 후기 청소년기

이성지향의 관계유지가 지속되며 초기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혼란과 자아 및 추동의 재조직 경향이 감소된다.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정체가 견고하게 확립되며 자아통합으로 정진하는 단계다.

### 6단계 : 청소년기 이후기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로서 성격구조가 견고해진다.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시기로, 강력한 초자아의 발달과 자아 이상의 발달로 도덕관념이 확고해진다.

---

Blos의 청소년의 발달 6단계는 추동조직의 재구성, 자아발달, 신체적 성숙, 갈등의 형성과 해소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시켜 만들어낸 자기도취적 만족(narcissistic gratification)을 통해서, 상실되어가는 부모와의 대상관계(object relation ideation)를 보상받는다. 다시말해서, 청소년들은 실제 혹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감탄반응'을 예상하는데, 이때의 공상 속의 관계가 상실되어가는 부모와의 대상관계(object relation)를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방어적 기능은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과정 동안 상

실해가는 부모와의 관계를 보상하고 청소년의 자아를 고양시켜주며 청소년이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느끼게 될 정서적 경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이런 개인적인 백일몽(private fantasy)은 대상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대치된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이상적인 상(vision of the self)"이다. 즉, 초자아에 의해 내면화된 전지전능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자기(self) 혹은 가능한 자기



(possible self)에 대한 사랑으로 대치시켜 버린 결과이다. 이는 불안정하고 무능력한 청소년의 자아를 풍요롭게 하는 자아방어적 노력이다(Lapsley & Rice, 1987).

한편 인지발달로 물리적 세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청소년은 “자기관찰(self-observing ego)” 능력이 생겨나 자신의 내적 세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게 되고 이런 능력은 청소년이 자신의 자아경계를 확고히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은 고양된 개인적 독특감(“어느 누구도 나같이 세상을 볼 수는 없어.”)을 경험하는 동시에 자신을 관리하는 주체의식(personal agency)과 불멸감(invulnerability)도 함께 느낀다.

이런 이론적 개념을 검증한 Lapsley, Fitzgerald, Rice와 Jackson(1989)은 이시기의 발달과제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제를 이행하면서 청소년 개인 내면에 내재하는 의존 욕구가 투사적이고 거부적으로 표현된 결과로 자아중심성 경향이 강해진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내연구(장근영과 윤진, 1992)에서도 상상속의 청중은 분리 불안 및 함입 불안과 관계가 있으며 개인적 우화는 자기몰입과 관계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역동적 혼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를 검토한 김인경(1993b)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자기몰입과 정적관계를 보여 청소년기의 자신에 대한 내적 집착과 관련있음을 보고했다. 특히, 상상속의 청중은 분리불안이나 공생관계와 상관이 있어, 부모와 의존관계 및 정서적 애착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와 관련있음을 보였고, 개인적 우화는 부모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이나 정서적 애착에 대한 욕구가 없는 상태를 나타냈다. 즉, 상상속의 청중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동시에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갈망도 있어, 의존과 독립욕구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반면

에, 개인적 우화는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에 대한 갈망이 적고, 자신에 대한 내적 통제 욕구가 강하고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와 과장된 자기 효능감에 몰입된 상태로 보여진다.

다시 정리해보면, 상상속의 청중은 부모로부터 독립에 따른 대상관계의 보상으로 나타난 방어적 특성이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강한 의존욕구와 욕구충족에 대한 기대와 이에 상충되는 부모와 떨어져 심리적으로 독자적 삶을 영위해야 하는 불안과 두려움 등이 방어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반면에, 개인적 우화는 자신에 대한 과장된 통제감과 유능감으로서,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 때문에 개별적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는데 대한 불안과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긴 과장된 자기도취감, 그리고 이런 과장된 독자성이 방어적으로 표현된 대인관계에서 의존 욕구의 회피 등으로 표출된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분리 개별화 과정과의 관계에서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간에 서로 다른 구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인경, 1994).

### 3. 청소년기의 자아발달과의 관계

이시기 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상적 자아와 새로운 정체를 형성하려는 강한 욕구로 인해서, 자신의 자아를 다양한 측면으로 분화시켜 매우 세분화된 자아조망(self-landscape)을 갖는 반면, 자신의 자아경계를 설정하고자 이를 다시 재통합해야 하는 격변을 경험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아에 대한 반추적인 집착(reflective preoccupation)을 보이고, 이점이 이시기 특유의 행동적 특징이자 고민의 근원지가 된다.

임상적 문헌을 보면, 청소년기는 내성(introspection)을 향한 극적인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아는 관찰과 숙고(reflection)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Freud,

1965). 청소년들은 논리적으로 짜임새있는 통합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들의 눈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우회적인 자의식), 그리고 이전의 역할과 기술을 오늘날의 이상적인 전형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 병적으로 몰입한다(Erikson, 1968). 최근에 언급된 청소년기 자아반영(self-reflection)이론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들은 '나다'라는 확고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지적인" 자아의 존재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진다(Broughton, 1978, 1981; Lapsley & Rice, 1988; Selman, 1980). 그리고 후기 청소년기 동안에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해서 합법성을 부여하는 문제에 몰두한다.

많은 이론가들이 이런 청소년기의 자아반영의 전제조건으로 형식조작 사고의 출현을 들고 있다. 인간의 사고에 대해 생각하고 내적인 사건들을 숙고하는 능력은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으나, 청소년기가 되면 개인의 경험을 감독할 수 있는 지적 정신과정들의 저장소로서 자아가 부각된다. 그리고 초기 청소년기의 주요 과제는 사고를 정복하는 것, 즉,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이다(Elkind, 1967).

따라서 이런 새로운 인지능력의 출현과 더불어 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며, 이런 어려움은 청소년들이 조망수용이나 자아반영적 판단을 포함한 다른 기술에 이런 인지 능력을 적용하는 경우에 나타난다(Fisher, 1980; Harter, 1983). 예를 들어 초기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지적인 집착(mental preoccupation)때문에 자신과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이다(Elkind, 1967). 그리고 자신의 생활 이야기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주인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에 의해서만 독특하게 경험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절망이나 환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 현상을 보인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인지구조를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자아와 타인 간에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분화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내적지향성(introspectiveness)은 분산된 주의를 자신에 대한 사고와 감정 그리고 신체 상태에 집중하는 경향성으로 반영적 판정과정(the process of reflected appraisals; Mead, 1934; Rosenberg, 1979)에서 생성된다. 아동기 이후부터 초기 청소년기에는 점진적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자신을 추상적 사고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특히,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사고, 감정과 신체 상태에 대해 주의를 집중한다. Hansell 등(1986)에서 보면, 청소년기 초기에 이런 경향이 급증하다가 그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유사한 발달 곡선을 보였다. 따라서 내적지향성도 청소년기 초기에 자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상과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자의식 등)과 관련있는 변인임을 시사했다.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아에 대한 자기반영적 검열(monitring)을 할 때도, 청소년들은 한편으로 자아에 대한 청중(audience)의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타인들"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청중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높은 자기검열(self-monitoring) 경향을 지닌 사람들의 극단적인 역할 수행 기술은 상상속의 청중 상념을 가진 청소년의 자아 역할과 유사한 점을 지닌다. 그리고 자기 감찰 경향이 연령 변화에 따라 증감하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두 구인과 유사한 발달양식을 보인 연구(Lapsley, Jackson, Rice & Shadid, 1988)에 따르면, 자아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적 환경과 타인에 의존해서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자기 감찰 경향이 높은 반면에, 자아발달 수준은 낮았다.

일반적으로 상상속의 청중 경향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낮은 자존심과 관계가 있으며

(Hauck, Martens & Wetzel, 1986; Mullis & Maskstrom, 1986), Loevinger의 자아발달 단계와도 부적 관계를 보여서(Lapsley, Jackson, Rice & Shadid, 1988),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김인경(1993a)에서는 상상속의 칭중과 개인적 우화가 청소년의 부정적 및 긍정적 자아개념에 각각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상상속의 칭중이 낮고 개인적 우화가 높은 집단이 자기평가를 가장 긍정적으로 하였으며, 반대로 상상속의 칭중이 높고 개인적 우화가 낮은 집단이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상상속의 칭중은 자아개념을 낮추는 반면 개인적 우화는 이를 높이는 작용을 했다. 여기서 추론되는 한가지 가정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높더라도 두 하위구인 중 어느 쪽이 더 높으나에 따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향과 회의적 반응을 많이 드러낼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도취적 자신감이 표현되어 긍정적 자기평가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상상속의 칭중 척도(IAS)를 요인분석한 결과에서 입증되었다(Mullis & Markstrom, 1986). 상상속의 칭중 척도(IAS)를 요인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공통요인에 대해 높은 요인부하를 갖는 문항이 서로 달랐다. 즉, 저연령에서는 개인의 일시적인 자아속성 문항에, 그리고 나이든 청소년 후기에서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자아속성 문항에 대해 높은 요인부하를 보였다.

#### 4. 정체감 확립과의 관계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 과제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포함한 자아정체감 형성이다. 즉, 청소년기는 자아의 독특하고 자기나름의 특이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의미있는 타자와 사회의 지원 아래서 개인적 정체를 형성하려는 욕구 간의 긴장 상태에 놓인 시기다

(Damon & Hart, 1988).

인지적 성숙과정 및 자아정체감을 관련시켜 설명한 Adams(1976)는, 청소년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이시기의 인지적 성숙과 사회성 발달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심리구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변한다고 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정체감 형성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수준으로 발전해가는 사회적 경험과 개인 간 심리역동적 발달이 통합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아중심성은 인지발달의 각 단계에서 오지각(misperception)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전 단계에 비해서 세상에 대한 보다 성숙한 시각을 갖게 한다. 그리고 각 개인은 인지체계의 성숙을 통해서 타인과 사회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능성을 발달시키고, 이런 사회적 경험은 자아중심성의 해결에 영향을 준다. 정체감을 확립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 개인의 관여상태(commitment)라는 것은 자신의 부모와 타인들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추상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수용력을 요구하는데 이런 능력은 인지적으로 탈중심화된 성숙한 지적 체계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 정체감은 개인이 완전히 탈중심화되어 자신을 타인과 구별된 개별적 존재로 인식할 때 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곧 탈중심화를 말하며,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탈중심화에 대한 간접적인 표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체감 형성과정에는 '개인적 독특성'에 관한 인식과 집단 이상을 향한 연대의식이 모두 포함되고(Erikson, 1968), 따라서 부분적으로 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각에서부터 나온 자기지각과 자기 이미지로 이루어진다(Ganier & Enright, 1989). 청소년기의 사회적 자아에 대한 지각과정은, 그들이 자신들과 상호작용하는 타인들과 자신과의 분

명한 지각차이를 파악해서 보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아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즉, 이 시기는 사회적 대인관계 경험이 증가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여러 다양한 집단(가족, 또래, 사회)을 이해하며 자신의 자아가 사회적 대상들로부터 얼마나 유사하고 다른지를 알게 된다(Gallatin, 1975).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은 이시기의 발달적 특징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관심' 때문에 대사회적 장면에서 자의식이 강해진다(O'Connor & Nikolic, 1990). 그리고 이시기는 인생의 전 과정 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개별화(individuality)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해서, 여러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타인들과 자신 간의 개별화 표시를 찾기 위해 주의깊은 관찰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관심(self-concern)은 더욱 증가하고, 자신과 타인의 관점은 더욱 혼동되기 쉽다. 그러므로 타인과 자신의 유사점에 대한 지나친 관찰은 경직된 동조를 유도하고, 자신과 타인의 차이점에 대한 지나친 이해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Enright & Deist, 1979; Enright, Ganiere, Buss, Lapsley & Olson, 1983).

경험적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과 정체감 형성 정도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김인경과 장근영, 1992; Adams, Abraham & Markstrom, 1987; O'Connor & Nikolic, 1990; Protinsky & Wilkerson, 1986).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정체감 확립과는 부적 관계, 역할혼미와 정체유실과는 정적 관계를 보여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젊은이들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적응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편,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기 동안 이루어 놓은 심리사회적 발달은 미래의 개인적

적용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이춘재, 1991). 특히 주변인으로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실적 문제와 내면 세계의 재구조화를 이루기 위한 혼란스런 발달적 격동을 경험한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드러내는 부적응적 행동, 특히 이 연령대에만 유독히 두드러지는 무모한 행동(reckless behavior: 위험추구행동, 10대 임신, 약물사용, 폭주족, 비행, bandalism 등)은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해온 이시기 만의 전형적인 현상이자 청소년 문제의 발원이다.

이런 현상을 발달적 차원에서 설명해보면(Arnett, 1992), 음주 후 폭주 행동(Arnett, 1990a), 피임하지 않은채 성관계하기(Goldsmith et al., 1972; Kalmuss, 1986; Oskamp & Mindick, 1981.) 등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감행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그들 자신들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Arnett, 1990b). 즉,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확률적 오판(추단료; heuristics, Tversky & Kahneman, 1973)을 범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바램과 두려움에 따라 현실을 왜곡시키는 자아중심적 경향을 보인다(Elkind, 1967, 1985).

한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하위구인으로서 개념화되어 오던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두 개념 간에 상관( $r=.15$ 에서  $.25$ )이 낮다는 연구들(김인경과 장근영, 1992; lapsley et al., 1989)에 근거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의 적응력 및 정신건강에 있어서 상상속의 청중은 정신병리와 정서상태 그리고 기타 사회적 관계의 부족과 같은 부적응과 관련을 보인 반면, 개인적 우화는 대처능력, 리더로서의 적응 및 직업, 교육지향 등 일반적 적응력과 사회적 관계의 유능성 등의 적응 잠재력과 관련이 있었다(김인경, 1994). 그리고 자아중심성과 관련변인들의 연구에서 상상속의 청중은 자아관련 변인으로 자존심, 정체감, 자아발달(Mullise et al., 1986; O'Connor et al., 1990)과 의존성 및 신경과민

등의 사회적 기술부족(Cohen et al., 1988; Hauck et al., 1986)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개인적 우화는 적응 문제와 관련된 변인으로 자살상념과 우울증(Cole, 1988)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결과는 개인적 우화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상속의 청중은 자신에 대한 환상, 특히 대인관계 상화에서의 친밀감 형성이나 거부당하는데 대한 두려움 등과 관련이 있고 자아개념의 영역에서도 고독감, 우울, 정서 불안정과 관련을 보여 청소년기의 부적응을 설명하는 변인과 관련있음이 시사된다. 따라서 자아중심성과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정서적 불안정과 부적응의 관계, 혹은 이 둘간에 매개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6. 가족환경과의 관계

가족관계는 개인의 성장 발달에 기능적 중요성을 지닌다. 부모와 유사한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높은 도덕성과 자율성을 보이며, 청소년의 개별화 정도는 가족 성원과의 유대감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던 가족 상호작용 속에서 성숙되고, 이런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 탐색과 역할수용 기술 그리고 자아발달에서도 높은 성취 수준을 보였다(Grotevant & Cooper, 1985, 1986; Hauser, Powers, Noam, Jacobson, Weiss & Follansbee, 1984). 반면 가족은 사회적 무능력, 의존성, 소외, 폭력 행동, 청소년 비행, 반사회적 행동 등의 일차적인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Leigh & Peterson, 1986, Steinberg, 1987; Steinmertz, 1987).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가치, 행동을 생활 경험을 가족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습득한다(Peterson & Leigh, 1991; Peterson & Rollins, 1987).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출현에 대해서 여러 관점의 설명이 제안되고 있으나, 쇠퇴 현상에 대한 이유는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적 대인 관계 경험을 통해서 익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련있다는 점이다(Lapsley, 1991; Rosenroll, 1987).

따라서 청소년이 접하는 주요 사회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가족체계'는 사회관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차적 경험의 장이 된다. 그러므로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아중심성이 극복된다는 전제 하에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관련성이 연구되어 왔다. 청소년이 부모의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되는데, 특히 부모를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자아중심성이 높았고, 부모와 신체적 애정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 경향이 적었다(Adams & Jones, 1981, 1982; Riley, Adams & Nielson, 1984).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자아중심성이 낮았으나, 부모가 통제적이거나 지나친 방임상태라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그 경향이 강했다(김인경과 윤진, 1988).

비행 청소년 연구에서 부모(특히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에 자아중심성 성향이 높았다(Anolik, 1981). 자아중심성 성향의 절정 연령이 13세인 반면, 비행 집단의 경우 평균 15세로 그 경향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발달적 지연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윤진 등, 1989), 비행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의 지지적 태도가 불충분했던 가정생활 경험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상상속의 청중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낮았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애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치를 의도적으로 드러낼 필요를 덜 느끼게 하여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예민함이 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지나친 통제와 과보호 또는 무관심은 무력한 자신, 타인의 관심 밖인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드러내서 알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때문에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비행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과는 달리 그들의 실제 가정 생활의 역동 관계에서 특이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오히려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 맥락에서 더욱 강력한 사회화의 영향을 받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아중심성 경향은 다소 다른 양식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상상속의 청중 경향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다 (Peterson, 1982). 따라서 부모의 애정이나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등의 대인 관계 경험은 청소년이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7.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발달상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단순히 발달적 미성숙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여러 발달 영역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정리하여 본 결과, 이 자아중심성 경향은 아동기 동안 개체 발달적 맥락에서 분화된 형태로 진행되어 온 인지적, 성격적, 사회인지적 영역의 발달이 재통합되어 개인의 총체적 발달의 모습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인지적 영역에서 논리적 추론 능력이 발달해야 함은 물론, 성격 및 동기적 영역에서 타인의 조망을 통합할 수 있는 여유와 필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개인의 총체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사회인지적 발달, 자기이해 및 자아발달 과정 등 개인의 전체 발달 맥락에서 일어나는 병행적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최근의 연구동향과 맥을 같이한다. Kahlbaugh와 Haviland(1991)는 인지발달 영역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획득되는 논리적 역조작 능력이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능력이 없이는 과거의 자신(self)과 지금의 자신을 함께 다루지 못하므로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또한 발달의 일반적 원리로 인정되어온 Heinz Werner의 정향 진화의 원칙(orthogenetic principle)을 개인의 발달과정에 적용시켜볼 때(Lerner, 1990), 사회인지(예를 들어, 역할취득)영역, 자기개념(self-concept)영역, 논리-수학적 인지영역 등 개체 발달의 제 영역이 먼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험과 발달과정을 거쳐서 인생의 각 시기에 각 영역의 발달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간다고 설명할 수 있다(Lerner, 1991; Loevinger & Wessler, 1970; Lapsley, 1991; Broughton, 1978).

그렇다면 한 개인의 전체적 발달 맥락에서, 발달은 먼저 성격, 인지, 사회성 등의 여러 영역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발달한 영역들이 통합되는 과정이 있어 이 두과정이 순환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전환과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되는 여러가지 발달적 사건들, 예를 들어 보다 성숙한 사고력의 획득이나, 감정이입과 같은 정서적 능력의 발달, 자아정체감의 발달, 가족관계 중심에서 또래 관계 중심으로의 대인관계 확대,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의 발달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조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세부적인 경험적 후속 연구들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수행된 일련의 국내 연구(김인경과 장근영, 1992; 장근영과 윤진, 1992; 김인경, 1993a,b,1994)에서 청소년 중기 이후에 자아중심성 경향이 일관성있게 증가함을 보이는데, 이런 연령증가에 따른 자아중심성의 증가 경향은 기존 이론 및 외국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발달양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개념에는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미성숙으로 인한 '왜곡된 자기'에 대한 환상'이라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연구 결과는 다수의 우리 청소년을 발달적 미성숙 내지는 발달지체로 해석하게끔 한다. 따라서 국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원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문화내의 대인관계 장면에는 전통적으로 "체면"이라는 의식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체면은 평등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보다는 타인의식적이고 신분지향적인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교환 차원으로 작용한다(최상진, 1993; 최상진과 유승엽, 1992). 다시 말하면, "체면"은 나, 혹은 나와 관련된 사람이나 사건등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에 관해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탐색하며 자신의 사고를 숙고하는 자의식(self-consciousness)경향성의 경우, 우리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에 비해 그 성향이 상당히 높다(양은주, 1992)는 보고도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개념적 정의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란 측면은 특히, 이런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의문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발

달적 미성숙이 존재한다고 가정할때,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다른 영역의 발달과제와 관련해서도 발달적 미성숙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의 발달과제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아발달, 정체확립 및 도덕·가치의 발달등의 심리사회 발달 영역에서도 미성숙한 발달경향을 보이는데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특유의 행동으로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경향은 청소년 발달의 시기적 보편 현상으로 이시기의 전형적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청소년을 대할 때, 이런 사전적 이해를 동반한 보다 깊고 따뜻한 배려가 전제된다면, 청소년 특유의 행동과 소위 청소년 문제로 일컬는 행동을 접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이다. 특히 기성세대들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대할 때, 성인의 관점이 아닌 청소년 발달을 고려하는 시각으로 대처하면 사회와 청소년 개개인의 앞날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분야(중, 고교의 상담교사 및 일반 교사, 청소년 상담원, 교정활동,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학부모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의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대중매체의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인경(1994).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하위구인의 내용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7(1), 21-43.
- 김인경(1993a).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2), 96-119.
- 김인경(1993b).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 가족관계, 분리개별화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경과 윤진(1988).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연구 - 인지발달,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7(1), 54 - 62.
- 김인경과 장근영(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4(1), 143-156.
- 윤진, 김인경, 및 김길청(1989).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발달의 관계. **형사정책**, 4, 67 - 96.
- 장근영과 윤진(1992). 분리개별화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4(1), 157-176.
- 최상진(1993).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자기”. **한국심리학회지:사회**, 7(2), 24-33.
- 최상진과 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사회**, 6(2), 137-157.
- Adams, G. R. (1976). Personal identity formation : A synthesis of cognitive and ego psychology. *Adolescence*, 7, 151-164.
- Adams, G. R., Abraham, K. G., & Markstrom, C. A. (1987). The relations among identity development, and self-focusing during middle and late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92-297.
- Adams, G. R., & Jones, R. M. (1982). Adolescent egocentrism : Exploration into possible contributions of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25-31.
- Adams, G. R., & Jones, R. M. (1981). Imaginary audience behavior :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 1-10.
- Anolik, S. A. (1981). Imaginary audience behavior and perceptions of parents among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443-454.
- Arnett, J. (1992).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339-373.
- Arnett, J. (1990). Drunk driving, sensation seeking, and egocentrism amo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541-546.
- Arnett, J. (1990). Contraceptive use, sensation seeking and adolescence egocentr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171-180.
- Blasi, A., & Hoeffel, E. C. (1974). Adolescence and formal operations. *Human Development*, 17, 344-363.
- Blos, P. (1962). *On adolescence*. N.Y. : The Free Press.
- Brill, H. Q., & Cristie, R. L. (1974). Marijuana us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 Follow up study of a college population. *Archives of Genetic Psychology*, 31, 713-719.
- Broughton, J. (1978). Development of concepts of self, mind, reality and knowledge. In W. Damon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Vol.1*.



-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Broughton, J. (1981). The divided self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4, 13-32.
- Chandler, M. J. (1973). Egocentrism and antisocial behavior : The assessment and training of social perspective-taking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9, 326-332.
- Cohn, L. D., Millstein, S. G., Irwin, C. E. Jr., Adler, N. E., Kegeles, S. M., Dolcini, P., & Stone, G. C. (1988).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egocentr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212-222.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Damon, W., & Hart, D. (1982). The development of self-understanding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841-864.
- Damon, W., & Hart, D. (1988). *Self understand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mbo, R. L., Derkete, M., laVoie, L., & Bonder, S. (1987). Physical abuse, sexual victimization, and illicit drug use : A structural analysis among high risk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0, 13-34.
-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Elkind, D. (1978). Understanding the young adolescent. *Adolescence*, 13, 126-135.
- Elkind, D. (1974). *Children and adolescents : Interpretive essays on Jean Piaget* (2nd ed.).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Enright, R. D., & Deist, S. (1979). Social perspective taking as a component of identity formation. *Adolescence*, 14, 517-522.
- Enright, R. D., Ganiere, D. M., Buss, R., Lapsley, D., & Olson, L. M. (1983). Promoting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247-255.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 Wiley.
- Fisher, K. W. (1980). The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ical Review*, 87, 477-531.
- Gallatin, J. (1975). *Adolescence and individuality*. NY : Wiley.
- Ganiere, D. M., & Enright, R. D. (1989). Exploring three approaches t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619-627.
- Goldsmith, S., Gabrielson, M. O., Gabrielson, I., Mathews, V., & Potts, L. (1972). Teenagers, sex, and contraception.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4, 32-38.
- Goossens, L. (1984). Imaginary audience behavior as function of age, sex, and formal operational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7, 77-93.
- Gray, W. M., & Hudson, L. M. (1984). Formal operations and the imaginary audi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619-627.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Hansell, S., Mechanic, D., & Brondoro, E.

- (1986). Introspectiveness and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2), 115-132.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Y.: Wiley.
- Hauck, W. E., Martens, M., & Wetzel, M. (1986). Shyness, group dependence and self-concept : Attributes of the imaginary audience. *Adolescence*, 21, 529-534.
- Hauser, S., Powers, S., Noam, G., Jacobson, A., Weiss, B., & Follansbee, D. (1984). Familial context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28, 459-468.
- Kahlbaugh, P., & Haviland, J. M. (1991). formal operational thinking and identity.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Y : Garlan.
- Kalmuss, D. (1986). Contraceptive use : A comparison of ever- and never-pregnant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7, 332-337.
- Lapsley, D. K. (1991). Egocentrism theory and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in adolescence. In R. M. Lerner, A. C. Peterson, & J. Brooks-Gunn(Eds.), *The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Y.: Garland.
- Lapsley, D. K., Fitzgerald, D. P., Rice, K. G., & Jackson, S. (1989). Separation-individuation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A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 483-505.
- Lapsley, D. K., Jackson, S., Rice, K., & Shadid, G. E. (1988). Self-monitoring and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An ego-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7-31.
- Lapsley, D. K., Milstead, M., Quintana, S. M., Flannery, D., & Buss, R. R. (1986). Adolescent egocentrism and formal operations : Tests of theoretical assump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800-807.
- Lapsley, D. K., & Murphy, M. N. (1985). Another look at the theoretical assumptions of adolescent egocentrism. *Developmental Review*, 5, 201-217.
- Lapsley, D. K., & Rice, K. (1987).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 Toward a general model of adolescence ego development.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 Integrative approaches*. N.Y.: Springer.
- Leigh, G. K., & Peterson, G. W. (1986). *Adolescents in families*. Cincinnati, OH : South-Western.
- Lerner, R. M. (1991). Changing organism-context relations as the basic process of development :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27-32.
- Loevinger, J., & Wessler, R. (1970). *Measuring ego development I : Construction and use of a sentence completion test*. San Fransico : Jossey-Bass.
- Mahler, M. S., Pine, F.,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infant*.

- N.Y.: Basic Books.
- Muuss, R. E. (1988). *Theories of adolescence* (5th ed.). N.Y.: Random House.
- Mullis, R. L., & Markstrom, C. A. (1986). An analysis of the imaginary audience scal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 305-316.
- O'Conner, B. P., & Nikolic, J. (1990). Identity development and formal operations as sources of adolescence egocentr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149-158.
- Oskamp, S., & Mindick, B. (1981). Personalit and attitudinal barriers to contraception. In D. Byrne & W. A. Fisher(Eds.), *Adolescence, esx, and contraception*. NY:McGraw-Hill.
- Peterson, C. (1982). The imaginary audience and age, cognition and dating.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0, 317-318.
- Peterson, G. W., & Leigh, G. K. (1991). The family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In T. Gullotta, G. Adarms, & R. Montemayor (Eds.), *Developing social competency in adolescence*.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Peterson, G. W., & Rollins, B. C. (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Plenum.
- Pesce, R. C., & Harding, C. G. (1986). Imaginary audience behavior and its relationship to operational thought and social experi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 83-94.
- Protinsky, H., & Wilkerson, J. (1986). Ego identity, egocentrism, and formal operations. *Adolescence*, 21, 461-466.
- Riley, T., Adams, G. R., & Nielsen, E. (1984). Adolescent egocentrism : The association among imaginary audience behavior, cognitive development, and parental support and reje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401-417.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Rosenroll, D. A. (1987). Early adolescent egocentrism : A Review of six articles. *Adolescence*, 22, 791-802.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Y.: Academic Press.
- Selman, R. L., & Byrne, D. F. (1974). A structural-developmental analysis of levels of role taking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5(2), 803-806.
- Steinberg, L. (1987).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 Effects of pubertal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51-460.
- Steinmertz, L. (1987).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In M. Sussman & L. Steinmer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N.Y.: Plenum.
- Tversky, A., & Kahneman, D. (1973). Availability : A heuristics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 207-232.
- Vikan, A. (1983). Piagetan inconsistencies : A note on the formal operational interpretation of adolescent psychological developmen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4, 339-342.

# The Adolescence Egocentrism : A Review of Theories and Phenomena

In-Kyung Kim    Gene Yo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adolescence egocentrism has been a durable and popular source of insights for explaining many typically observed adolescent behaviors. This study reviews various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 egocentrism and developmental areas(the formal operation and role perspective taking / secondary individuation / self-image and ego-identity formation / adaptation and mental health et al). Thus, results imply that adolescence egocentrism is associated with the global developmental processes that integrate and reconstruct the more expanding abilities of each developmental areas during the adolescence.